국토정책의 싱크탱크 "국토연구원"

이 정 식 | 국토연구원장

Ⅰ. 연구원 개요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1) 설립 배경

국토란 국민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국토의 여건 변화에 따라 국민 생활의 질이 달라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에 대한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살기 좋은 국토의 미래를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분야의 연구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토의 자연 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보전 및 개발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국토연구원(1999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국토연구원'으로 명칭 변경)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국토분야의 연구와 정책개발은 대부분 정부가 수행해 왔으며, 특수기술을 요하는 부문은 기술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수행되었다.

1969년 7월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수립을 위해 설립된 '국토계획조사단'의 경우, 외국 원조에 의해 단기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토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당시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외국의 컨설팅 그룹을 초치하거나, 정부의 정책 과제에 대학교수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같이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토목공학적 접근이나 단편적인 국토관련 연구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연구를 통하여 장기국토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관단 아래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국토연구원을 1978년 10월에 설립하였다.

2) 연혁

국토연구원은 당초 1978년 10월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이어서 1981년 5월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를 통합하였으며, 1994년 5월에는 안양시 평촌 신도시에 연구원 자체 청사를 신축하였다. 그리고 1999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이때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종래의 '국토개발연구원' 명칭을 '국토연구원'으로 변경하였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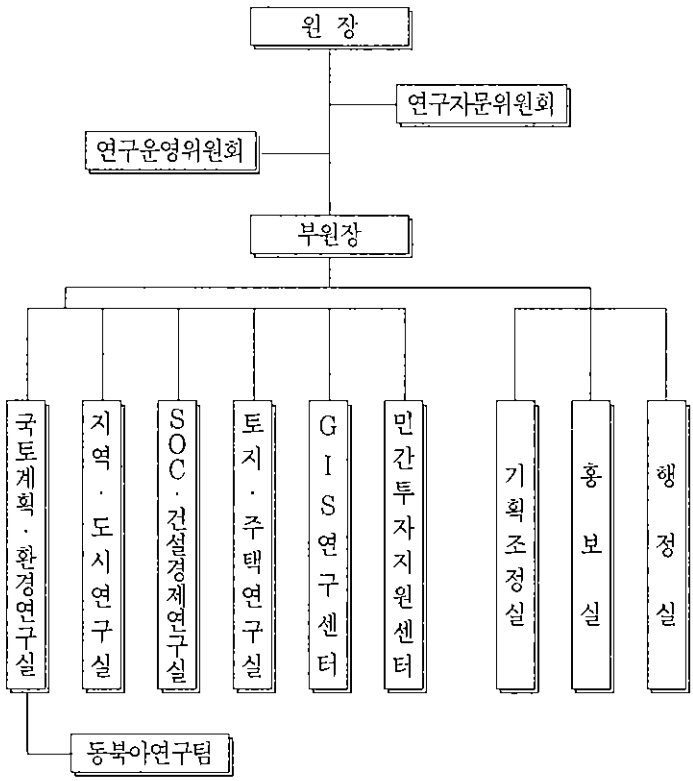
1999년 4월에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설립 목적 및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 자원의 효율적 이용 · 개발 ·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학제적(學際的)으로 수행하고 있다. 가령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중장기 국토종합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자연 친화적인 국토발전과 자원관리에 관한 정책개발, 남북통일에 대비하면서 동북아 차원의 국토발전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연구, 선진 도시 환경조성 및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토지의 질서 있는 개발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로는 SOC 및 도로 관련 계획수립 연구, 건설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건설 관련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 공간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을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인 GIS 관련 기초 연구, 디지털 국토건설을 위한 국가 GIS 정책개발, GIS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 수행 및 GIS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관련 분야의 인재양성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국토 전문가 네트워크인 "21세기

〈국토연구원의 조직 구성〉



국토포럼" 운영 및 전문가 양성, 국내 산학연 공동연구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 그리고 국제 학술회의 및 공동연구와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 기구 및 조직

국토연구원의 인력은 2002년 1월말 현재 총 168명으로 원장 1명, 연구직 150명, 관리직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분야 박사인력 57명과 석사인력 70명을 확보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4개 연구실과 2개 연구센터, 1개 연구팀, 그리고 3개 지원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연구실은 국토계획 · 환경연구실, 지역 · 도시연구실, SOC · 건설경제연구실, 토지 · 주택연구실이며, 2개 연구센터는 GIS연구센터와 민간투자지원센터이고, 동북아연구팀이 있다. 3개 지원부서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그리고 행정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의 예산 규모는 2002년도에 약 172억 원이며, 이 중 수입예산으로는 정부출연금이 102억 원, 자체 수입금이 약 70억 원이다. 지출예산으로는 인건비 약 67억 원, 연구사업비 약 91억 원, 그리고 경상운영비 등이 약 1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에 연구원 청사(대지 면적 8,155m^2, 연건평 19,960m^2로 10층 규모)를 가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보유한 정보 자료로는 국토관련 국내외 도서 72,192권과 570종의 전문지를 갖추어 국토분야에서 국내 최다 연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국토 및 건설업무분야 DB 3개, 지리정보체계(GIS) 분야 DB 3개, 도서 및 자료관리분야 2개 등 총 8개 부문의 국토관련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다.

Ⅱ. 연구 수행 및 지원 활동

1. 연구과제 수행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크게 10여 개 부문에 걸쳐 있다. 연구과제는 정부출연금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및 정책연구가 있으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의뢰에 의해 수행하는 수탁연구가 있다. 기본 및 정책연구는 매년 60여 과제를 수행하며, 수탁연구도 연간 60여 건 내외의 과제를 수행한다. 매년 수행하는 총 연구과제의 수는 다양한 연구 수요의 증가 때문에 199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 연구 성과

국토연구원에서는 1978년 10월 개원 이래 지금까지 국토계획, 지역개발, 도시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자원 및 환경, 건설경제, 그리고 국토정보관리 등의 세부 분야에서 모두 약 1,400건에 이르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제 2·3·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수도권 정비계획, 특정지역계획, 광역도시계획, 토지공개념 및 지가공시제도, 신도시 개발계획, 전국 도로망 계획, SOC 민자유치 방안 연구,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 등 각 분야별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주요 국토·지역계획들의 대부분이 국토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은 국가 차원의 국토정책 및 지자체 차원의 지역·도시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민간기업의 투자 및 경영정책의 설정과 학계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각 분야별 연구 성과물은 연구원 자료실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1998년 이전의 자료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표 1〉 연구 부서(팀)별 연구 업무 내용

부서(팀)명	연구업무분장 내역
국토계획·환경연구실	국토종합계획 및 장기 구상, 국토정책 평가 및 집행, 환경관리, 수자원, 관광 등 국토자원 조사, 산지·연안 연구
지역·도시연구실	지역경제, 산업입지, 수도권 및 지역계획, 도시(개발) 계획 수립·자문
SOC·건설경제연구실	SOC 종합계획 및 관리, 종합교통계획, 도로 및 철도, 물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건설산업정책 및 제도, 건설경기 동향 분석 및 전망, 건설산업정보화, 해외건설
토지·주택연구실	토지경제·이용·제도, 지가 분석 및 전망, 주택 및 토지관련 정책·제도 연구, 주택금융 및 재정
GIS연구센터	GIS정책, 국토정보(정책연구·관리·분석), 국가 GIS 구축, 국토공간·지역·건설교통 정보화
민간투자지원센터	민간투자사업평가·지원, 행정지원 및 교육, 관련 제도개선 연구
동북아연구팀	동북아 지역 경제, 계획·정책 및 관련 연구

〈표 2〉 국토연구원 연구 실적(1978~2001)

구 분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계
1970년대	9	1	3	13
1980년대	169	27	92	288
1990년대	293	297	285	875
2000년대	64	35	105	204
합 계	535	360	485	1,380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연구관련 지원사업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성과를 연구 수요자와 공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교육 및 대외협력사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등 민간차원의 국내외 교류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국제 및 국내 세미나

국토연구원에서는 매년 60여 회의 크고 작은 국내외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책연구에 대한 토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내외 세미나를 통하여 국토정책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국토 발전의 노하우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2) '21세기 국토포럼'

전국의 국토관련 전문가 네트워크인 '21세기 국토포럼'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1,240명의 회원과 4,500명의 국토관련 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있다.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립 시에는 '21세기 국토포럼'을 통하여 미래 국토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계획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3) 외국의 중견 공무원 연수교육 실시

198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위탁을 받아 매년 태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토·도시분야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10여 개 국가의 중견 공무원이 한국의 발전상을 견학하고 있으며, 연수교육 참가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국토 연구 관련 국제 채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4) '국토사랑 글짓기' 공모대회

차세대 국토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국토를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를 계기로 '국토사랑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시민단체와 더불어 국토사랑 캠페인이 각 분야별로 전개·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5) 대외협력 및 정기 간행물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세계 유수의 기관들과 대외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국토개발청

(DATAR), 하와이 동서문화센타(EWC), 미국의 MIT 대학, 중국과학원 등 8개국 13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료 교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정책분야의 연구 성과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월간), 『건설경제』(계간), 학술지로 등록된 『국토연구』(연 2회)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문 뉴스레터인 "Space & Environment"(영문, 연 2회)를 발간하여 해외에 한국의 공간정책 동향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Ⅲ. 국토연구원의 비전과 발전계획

1. 실사구시형 국토정책의 최고 두뇌집단으로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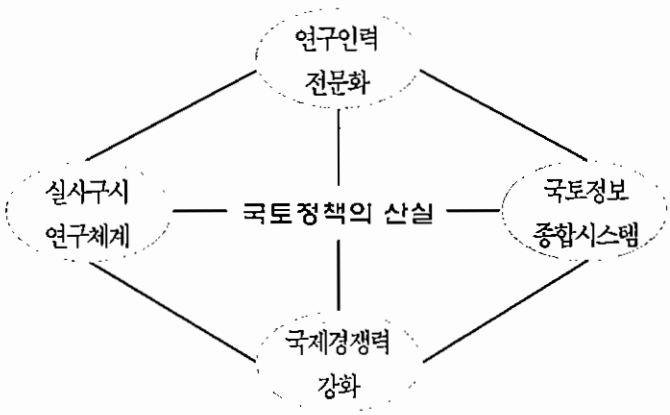
국토연구원은 향후 '국토의 미래를 선도하는 초일류의 실사구시형 연구원', '국토정책의 세계적 싱크탱크'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적 연구', '협동적 노력', 그리고 '쇄신적 발전'의 3가지 연구활동 지침으로 연구원의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기조로써 '새 천년 새 국토 창의적 연구'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회,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개방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구의 전문성 제고와 실사구시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초일류의 국토정보 종합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연구의 전문성 제고

앞으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토연구 수요에 대응하여 탁상계획(elite planning)을 탈피하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국토관련 정책결정과정(process planning)의 현실적 합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연구인력의 개인별 특화, 전문성 제고,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연구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며, 특수 목적사업의 Task Force Team 활성화로 연구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국토정책분야의 싱크탱크로써 세계적 수준의

〈국토연구원의 발전 목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2) 연구의 국제경쟁력 강화

연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전문가 Brain Pool 및 최신 국제 자료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적 자매결연을 체결한 8개국 13개 기관을 비롯한 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전문가 그룹과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인간정주위원회(HABITAT),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제휴하여 공동의 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2.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중심기관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구축사업의 간사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지리정보구축사업의 추진계획 수립과 표준화,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는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하여,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새주소부여사업, 도시정보 체계확립연구 등 국토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앞으로 도시방재, 물류, 부동산 평가 등의 여러 분야에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정보화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Ⅳ. 국토연구원이 대학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시사점

우리 사회에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는 성큼 다가와 곳곳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식기반의 정보화사회는 독창적이고 전문화된 문화를 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사 및 인접분야의 융합과 통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른바 산(産)·학(學)·연(硏)의 협력관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흐름은 연구기관과 산업체,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원과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활성화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토연구원은 연구자문 및 연구심의회, 세미나 및 공청회, 연구의 공동 수행과 연구 결과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100여 개 대학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연구원 출신 50여 명이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대학과의 교류 · 협력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지자체와도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16개 광역시 · 도와 230여 시 · 군 · 구와 교류를 맺고 있다. 이처럼 국토연구원은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전국의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있으며, 각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지리정보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은 60여 개의 기업체와 직접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시지가업무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기관, 그리고 SOC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주요 건설업체 등과 직간접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향후에도 계속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국토연구원은 연구의 기획 및 생산과 연구 결과물의 공유, 정책자문에 이르기까지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교류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국토개발, 도시계획, 국토정보 등 국토관련 연구분야의 취업에 뜻을 품고 국토연구원을 찾을 때 국토연구원의 문호는 늘 개방되어 있으며 그들을 따뜻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